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4



▶한줄요약
스리나가르를 향해 가던 일행은 길이 막혀 난감했다. 이 기자는 조실스님으로부터 받아온 이석원의 노트를 계속 읽어나갔다. 붓다가 난타를 제도하기 위해 탁발을 나선다.

출가 못한 난타, 제도에 나선 붓다

뉴델리에서 며칠 ②

1 갈림길

-행여 딴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모두가 출가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출가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절 버리지 말아 주세요.

-손타라,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그대를 버릴 수 있겠소.

-전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행여 출가를 결심하시기라도 하시면 전 목숨을 끊고 말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오. 우리는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이 그러는 사이 붓다는 라후라의 귀의만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한 다음 니그로다 정사로 돌아갔다. 가끔 니그로다 정사의 소문이 들려 왔다. 부모의 반대로 출가를 포기했을 줄 알았던 아나율과 밧디야가 어느 날 난타를 찾아왔다.

-미치겠어.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죽어도 출가를 허락할 수가 없다니 말이야.

아나율의 말이었다.

밧디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가문의 기둥이지 않은가.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지.

-형이 있는데도 그런다니까.

-네 형이라고 지금 제정신이겠어. 출가병(出家病)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던데 뭐.

아나율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꼭 출가하고 말 거야. 그런데 난타 넌 어떻게 된 거냐. 아직도 여편네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냐?

-형님, 왜 꼭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아. 아나율 형이 네 부인이 하도 미인이라 질투가 나서 그러잖는가.

밧디야가 허허거리며 웃다가 말했다.

-그럼 결혼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양반이 출가는 무슨….

-말을 말자. 그런 말을 하는 내가 한심하지.

아나율이 머리를 홰홰 내저었다.

-그러나저러나 밧디야, 아직도 생각을 못 바꾼 것이야.

-글쎄? 우리 집 반대도 자네 집 못지않으니.

-우리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네놈이 출가한다면 나의 출가를 허락하겠다는 것이야. 네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가는 하지 않을 테니…. 아주 못을 박았다며?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우리 부모들이 그러던데, 너 본을 보라고 말이야.

-아니야. 반대가 하도 심해 안심시키느라 그랬을 뿐이야.

-밧디야. 옛날을 생각해 봐. 그 풀밭. 그 위를 떠다니던 구름송이들, 입 속에서 녹던 코코넛 과자 그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말자고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었잖은가.

-아나율, 내게도 어릴 때의 추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 갈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어.

-밧디야, 내 말은 어릴 때의 추억거리 속에 영원히 살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의 꿈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야.

-우리의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기에?

-너는 말했었지. 어느 날 싯달타 삼촌이 바깥세상으로 나가보고 와서는 세상은 수라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그때 뭐라고 했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면 그 고통을 우리가 구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밧디야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제 그때가 온 것이야. 너도 듣지 않았느냐. 붓다의 말씀을.

-그래 나도 들었지. 그래도 내 부모님들이 허락하시지 않아.

-밧디야, 이미 그날 모였던 애들은 모두가 약속했어. 너와 난타만 빠진 거야. 심지어 수라다까지도 출가를 결심했다는데….

-뭐라고 수라다까지도!

-그래 그 시기심 많던 수라다도 붓다의 설법에 감화되어서는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이야.

-그렇다면 용기가 나는구나! 아나율. 사실 나도 붓다를 뵙는 순간 저분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중이었어.

-그럼 어서 가서 부모님에게 허락받아. 내가 가겠다면 어쩔 것이야. 우리 모두 붓다께 가서 그를 의지하여 또다시 모여 앉는 날을 만들어 보자.

-알았다, 아나율.

아나율에게 설복당한 밧디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출가할 것을 간청했다.

그들이 출가하는 날 난타는 홀로 풀밭에 앉아 있었다. 다시 붓다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비록 다디단 코코넛과 그것을 싸 먹던 보리수 나뭇잎은 없겠지만, 그보다 단 붓다의 감로수 같은 법문이 있을 것이었다. 가고 싶었다.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도대체 사랑이, 이 질긴 인연이, 진리가 무엇일까 싶었다. 그러면서 난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길이 막혔다는데요.

송 서화가가 들어서면서 말했다.

글을 읽다 말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워낙 글 읽기가 힘들어서 쉴까 하던 참이었다.

-스리나가르로 가는 중간 길이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답니다.

걱정스러웠다. 읽기가 힘들어도 글을 읽고 싶었지만, 시일도 있고 해서 밖으로 나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다. 송 서화가의 말이 맞았다. 눈길이 뚫리지 않아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굳이 가겠다면 도보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주 위험해요. 가다가 얼어 죽거나 사나운 맹수, 또는 식인종에게 잡혀 산 채로 먹힐 수도 있어요.

현지인의 말에 송 서화가가 싱글싱글 웃었다.

-설마 아직도 식인종이 존재하려고. 전에도 그런 말은 듣긴 했지만 멀쩡했는데….

그 말을 듣자 이곳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도보로 갔었나요?

내가 물었다.

-아뇨.

송 서화가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렇겠지요. 실제로 잡아먹힌 일이 있답니다. 아주 산 채로 구워 먹혔다고 해요.

-설마요.

-설마가 아닙니다.

돌아오는데 송 서화가가 돌아다니다 보니 복사집이 아직도 문을 열어 놓았더라고 해 방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노트를 들고 갔다. 악필이라 읽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복사해 송 서화가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아예 문을 닫은 거 같은데요. 장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송 서화가가 주위를 둘러보며 실망한 어조로 말했다.

-생각이 나네요. 프린트기기나 복사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여행객들만 상대해도 장사가 되겠다 싶던 때가…. 하기야 그때만 해도 옛날이지요.

-중국 대사관 앞에 가면 프린트 가게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너무 멀고…. 저는 천상 다 읽고 나서 읽어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원체 악필이라….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

2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석가모니 붓다가 고국을 떠난 지도 두어 해가 흘렀다. 가끔 난타는 교단의 소식을 듣곤하였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붓다에게 더 큰 건물을 지어 보시하였다고 하였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난타는 입술을 씹었다. 그들의 신심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출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손타라와의 꿈결 같은 사랑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깨달음이란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명치끝이 타고 입안에 불을 머금은 것 같았지만 머리를 내저었다. 결코 손타라를 버리고 출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붓다는 그의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출가하지 못하는 그의 아픈 마음을 구해 주기 위해 붓다는 다시 고국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붓다는 이른 아침 제자를 데리고 난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쯤 난타는 손타라와 함께 궁을 나와 한적한 교외에 살고 있었다. 붓다가 난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난타는 보료 위에 번듯이 누워 아름다운 아내가 화장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금빛 광명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는 아랫사람을 시켜 밖으로 나가 보게 하였다. 분명히 이런 신통을 놓을 분은 붓다밖에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랫사람이 밖으로 나가보고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난타에게 일렀다.

-붓다께서 이곳까지 탁발을 오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러합니다.

-내 이럴 때가 아니구나. 어서 나가 보자 어서.

난타가 부리나케 밖으로 달려 나가려 하자 눈치를 챈 손타라가 벌떡 일어나며 그를 잡았다.

-아니 됩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이는 필시 예삿일이 아닙니다. 붓다께서 당신을 출가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게 분명합니다. 저 금빛 광명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길로 나가신다면 저와의 인연은 끝입니다.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되세요.

-이보시오.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요. 예전의 내 형님이 아니오. 세상을 구할 붓다가 아니오. 내 잠깐 예배만 하고 돌아올 터이니 이 옷 좀 놓으시오.

-아니 되십니다.

-그럼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저와 약조해 주십시오.

-무슨 약조 말이오?

-방금 제가 얼굴에 한 이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일 더디거나 어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좋소.

난타는 그 길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는 붓다가 제자를 뒤로하고 서 있었다.

-붓다시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러합니다.

그는 붓다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안으로 들것을 간청했다.

-붓다시여. 안으로 드시지요.

붓다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난타야, 나를 의식하지 말거라. 나는 탁발을 왔느니라.

말뜻을 알아챈 난타는 붓다의 발우를 받아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가득히 담아 내왔다.〈계속〉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